



2기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호응

“먹거리 건강, 보람찬 농사, 제2의 인생”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지난 9월1일부터 시작한 제2기 도시민웰빙농사 교육은 4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24일 현장견학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협회의 입지적인 여건을 최대한 살려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매주 목·금요일 저녁시간에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토요일은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초록텃밭에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를 기할 수 있었다.

교육내용은 농사의 기초, 친환경농사, 분야별 재배, 건강농사, 도시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등의 이론강의와 현장중심의 실습 및 견학으로 짜여져 있으며, 도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교육을 하였다.

참가자는 퇴직이나 명예퇴한 사람으로서 귀농할 사람, 농촌에 약간의 전답을 소유한 사람,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농업기술을 배우고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얻고자 한결같이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하였다. 특히 첫날 농장에서 여름내내 자란 풀을 따서 뜯고 땅을 일구면서 “농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모종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9월24일 수료식 후 참가자들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산사원 박물관을 방문하여 민속주 제조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조상들의 높은 슬기를 느끼며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더욱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10여년 전에 귀농하여 “마보꽃밭”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학씨 농장을 방문하여 정갈하게 준비한 식사와 함께 현장 견학후 실제 귀농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자 교육 참가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퇴직후 귀농하여 자그마한 민박을 운영하는 김진옥 씨택을 방문하여 귀농의 애환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사실 그대로의 농촌생활을 이야기를 할때 많은 박수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본회는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농녹색교류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여 왔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앞으로 도시민에 대한 농촌·농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교류하는 도농상생운동에 앞장서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서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2기 모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본 협회도 금년 2차례의 웰빙농사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농촌견학 기회를 만들므로써 통합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도시민 웰빙농사” 수강소감

박재익(jaickp@hanmail.net)

먼저 “도시민 웰빙농사” 교육이 나에게서는 매우 유익한 내용과 시간이 되었으며, 주최인 전국농업기술자 협회와 4주간 함께 수강한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나의 경우에는 지난 중고등학교시절 생물시간에 배운 것이 농사지식의 전부였고, 실습이란 것은 군 생활 중 모내기 또는 벼 베기 지원을 해본 것이 실습의 전부였다. 결혼 후 처가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가끔 일손을 돕는 정도로 지내고 있으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농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던 차에 조간신문에서 교육안내 홍보를 보고 교육장소가 바로 집 앞이고, 시간이 저녁시간이어서 수강에 참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서 농사에 대한 현실과 귀농, 귀촌의 경우 어떤 방법과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차에 교육내용이 나를 위한 맞춤형 내용이어서 흥미로웠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강사님들의 열성적인 가르침과 참가자의 관심 속에서 많은 정보와 그 간의 농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렸으며, 초보자 농사꾼인 나에게서는 현장실습과 현장견학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또한 참가자 여러분의 다양한 농사체험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며칠 전 초록농장에 가서 텃밭에 심어놓은 김장채소를 보고 농사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실감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과정이 끝나고 교육소감 발표시간에 만족하는 것을 보았다. 이번 과정에서 일부 강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추가적 내용으로 복습효과도 있었다.

협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참가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가자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 임직원과 특히 교육기간 내내 수고하신 강춘성 회장님과 임갑목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참가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소기의 결실이 맺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중국, 흑룡강성 동포 농촌간부 및 농촌지도자 협회방문

지난 7월 21일(목)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 계림향 정부 박성진 당위서기를 포함하여 조선족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24명이 방한하였다. 중국동포타운신문의 초청으로 입국하게 된 이들은 25일부터 10일간 한국의 선진 농촌 지역과 농업기술을 견학하였다.

연수단 일행은 지난 7월 27일(수) 본회 강춘성 회장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춘성회장은 “상호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국간 우의를 다지고 한국의 선진기술을 배움으로서 조선족 농촌사회가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뒤 본회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오전은 낙농육우협회와 한국중축개량협회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으로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가득하였다. 이어서 오후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성원목장에 들러 우유생산과 가공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안성시에 있는 해진내포도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포도의 재배현장을 견학하였다.

다음날은 우중에도 불구하고 과천의 화훼농장을 방문하여 둘러보았으며 안산에 있는 일신화학을 방문하고 농사에 있어서 비닐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비닐에 대한 이용안내 설명을 듣고 난후 직접 비닐생산 공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일신화학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한 후 충북 청원의 이상수 충북도연합회장이 운영하는 상수허브랜드 농장을 방문하여 이상수 회장의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이어서 경남 사천의 대밭고을을 방문하여 현장설명을 듣고 이곳에서 숙박을 하였다. 이들은 허브의 다양한 상품화와 대밭고을의 농촌체험 사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흑룡강성의 먹거리위주의 1차 농산물생산에서 벗어나 2차, 3차 산업으로 나가야만 중국농업도 살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하였다.



근

본회 조춘선, 유승윤 2명의 지도위원 별세

조

제17회 농업기술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춘선 지도위원이 숙환으로 지난 7월 22일(금) 오전 향년 74세로 별세하였다. 조춘선 지도위원은 본회 운영위원과 이사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대학의 양돈강사로 여러차례 출강하여 농업기술보급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고향인 강화에 농업선각자들의 추모비 건립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본 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본 협회를 설립한 유석창 박사의 차남으로서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지낸바 있는 유승윤 지도위원이 지난 7월 28일(목) 향년 56세로 별세하였다. 발인은 8월1일(월) 오전8시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있었다.

전국 회원의 이름으로 고 조춘선 지도위원과 고 유승윤 지도위원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사과 고품질 및 피롤농법 세미나 개최

한국사과고품질연구회(회장 서석환)는 지난 7월 27일(수)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과고품질 및 토양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전은 배재대학교 문병우 교수가 출강하여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갈슘의 효과적인 시비방법에 대하여 열의있는 강의를 한후 질의응답을 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실용적인 강의로 많은 질의 응답이 있었다.

점심식사후 오후강의는 일본에서 온 피롤농법연구소 구로다야사코 소장의 피롤농법에 의한 토양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즉 피롤농법은 기존의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흙의 원기를 채워주는 것으로서 즉 “남조”는 비옥한 흙만들기를 위한 기초 자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조는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 뿌리를 강하게 하며, 토양을 단립화와 질소고정을 함으로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구로다야사코의 강의는 피롤농법의 장점에 치우쳐 설명함에 따라 사용방법 및 자재구입 방법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참가자들이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다.



제주 문시병, 진천 이문희, 임실 이재연 3명 회우 조합장 당선

- ▶ 제주도연합회 문시병 부회장은 지난 8월20일(토) 실시한 제11대 제주시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조합장에 선출됐다. 지역 농업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앞장 서왔던 문시병 회우는 50세의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지도력과 지역농촌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 ▶ 충북 진천의 이문희 회우가 지난 9월6일 선거에서 진천군산림조합장에 선출되었다. 이문희 회우는 생산 임산물의 브랜드화 및 생산성 높은 경제수종 위주의 산림경영 여건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산림조합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이문희 회우는 58세로 조합원의 권익에 앞장설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또한 전북 임실의 이재연 회우는 지난 8월8일(토) 관촌농협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리더쉽과 함께 덕망으로 지역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제주도연합회 임원선출공고

*일시 : 2005년 8월 5일 10시

*장소 : 제주도연합회 사무실

*선출임원 : 회 장 : 임 혁 재

부회장 : 김창열, 현재호, 안창식, 문시병

감 사 : 김인환, 김수철

지도위원: 강원호, 김두만, 양창식

사무국장 : 정선태

2005년 10월 1일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복분자 · 뽕나무(오디) · 땅콩의 묘목 및 씨앗분양안내

정읍지회 문병선 지회장은 복분자 3,000평, 오디 2,00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별도로 오디 실생묘목 30만주와 접목묘목 10만주를 재배하고 있다. 또한 땅콩(팔광) 1만5천평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묘목이나 씨앗을 저렴하게 분양함. 필요한 회원은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람.

〈핸드폰 : 010-9884-4441, 011-254-3487〉



초대 경기도지부장 이영순 선생 방문

지난 10월6일(목) 11시경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았다. 교정 입구 계단에 가지런히 놓인 가을 국화꽃이 방문객인 본회 강춘성회장, 정장섭 고문, 윤천영 이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교장실에 들어서자 84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게 보이는 이영순 교장 선생님이 방문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영순 교장은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활동을 하다 6.25전쟁 당시 단신 월남하여 광릉내에 정착하여 농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유석창 총재가 앞장서고 정장섭 전무가 실무자로 뛰면서 추진하였던 본 협회 창립에 이교장은 농업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초대 경기도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주밀식과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본회에서 '65년도에 이어 66년도 두 번째 일본연수생을 파견할 때 이교장은 인솔자로서 송석도 전 부총재와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처음 가보는 일본에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도 공업입국으로 가야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학교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갖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영순 교장의 설명을 통하여 그동안 굳건한 신앙심과 농심이 바탕이 된 의지로 극복한 입지전적인 면모를 볼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훌륭한 산업역군을 양성하는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날 파주시 지회 김재인 전지회장과 서우석 현지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원로 선배를 본인 농장에 초청하겠다는 인사말을 나누고 서우석지회장이 준비한 머루술을 들며 점심을 함께 하였다.



가운데 이영순 초대경기도지부장님